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4. 28.(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농업디지털센터장	김태우	☎ 760-7250
		업무담당자	임상현	☎ 760-7253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‘말하면 기록된다’ AI 음성 영농일지 개발 본격화

- 손으로 쓰던 영농일지 ‘퇴장’…10월 ‘제주DA’ 앱 전면 적용 -

- 제주어·고령 농업인 말투 반영…농작업 기록은 쉽게, 활용은 넓게 -

❑ **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인공지능(AI)을 활용한 영농일지 통합 고도화 사업을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.**

○ 이번 사업은 농업디지털플랫폼 ‘제주DA’의 영농일지 기능을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 농업인의 기록 부담을 줄이고, 데이터 기반 농정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.

○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1단계 사업을 통해 비료·농약 사용 등 주요 농작업을 중심으로 시나리오형 디지털 영농일지를 구축해 기본적인 디지털 기록 체계를 정립했다.

○ 이를 기반으로 이번 고도화 사업에서는 입력 방식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해, 농업인이 작업 내용을 말로 전달하면 자동으로 정리·기록되는 기능을 구현한다.

❑ **이번 사업의 핵심은 제주지역의 언어 환경과 농업 현장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(AI) 기반 음성 기록 기술이다.**

○ 제주어와 고령 농업인의 대화 방식 등을 학습한 음성 인식 기술을 적용해 작업 내용, 사용 자재, 작업 시간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.

○ 텍스트 입력은 물론 사진, 위치 정보 등 다양한 기록 방식을 지원하고, 통신 환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도 데이터를 우

선 저장한 뒤 자동 전송하는 기능을 도입해 현장 활용성을 높인다.

❑ **축적된 영농일지 데이터는 ‘제주DA’ 플랫폼 내 필지 단위의 기상·토양·생육·경영 정보와 연계돼 활용된다.**

○ 농업인은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영농 관리와 경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, 행정은 이를 활용해 정책 수립 등 농정 전반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.

○ 농업기술원은 5월부터 기능 설계 및 개발에 착수해 10월 중 ‘제주DA’ 앱에 해당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다. 이후 12월까지 농업인 200명으로 구성된 ‘제주DA 파트너스’를 대상으로 현장 테스트를 진행해 서비스 완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.

❑ **김태우 농업디지털센터장은 “인공지능(AI) 영농일지는 농업인이 현장에서 편리하게 기록하고, 그 데이터가 실질적인 정보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”며 “제주어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실용적인 서비스로 개발해 제주DA 앱이 필수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말했다.**